

산림청, '7월의 임업인'에 충북 충주에서 병풀을 재배하는 김종광 임업인 선정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이달의 임업인'으로 충청북도 충주에서 병풀을 재배하는 센텔라병풀농원 김종광(58세) 대표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 대표는 평범한 사업가였으나 우연히 접한 병풀의 무궁무진한 효능과 시장가치에 눈을 뜨며 임업을 시작했다. 2010년 고향인 충주로 돌아와 병풀 재배라는 아무도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시작했다.

병풀은 상처 치료 연고제의 핵심 원료로 피부재생을 돕는 효능이 있어 복용을 하거나 피부에 바르는 의약품과 일반 화장품 원료로 주로 많이 사용된다.

불과 십여 년 전만 해도 병풀은 추출물 형태로 전량 수입했다. 김 대표는 병풀을 국내에서 재배하게 되면 수입 대체 효과는 물론 새로운 소득원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끈질긴 연구와 시행착오 끝에 '다단식 수경재배 스마트팜'을 조성해 연중 생산체계를 구축했다. 현재 2,600㎡ 규모의 스마트 시설에서 연간 10톤에 달하는 병풀을 생산하고 있다.

김 대표가 생산하는 병풀은 'ST케어'라는 신품종으로 일반 병풀에 비해 잎의 크기가 4~5배에 달해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훨씬 많다. 또한,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유용미생물과 천연추출물만을 사용해 안전성을 높였다. 김 대표는 이렇게 생산한 병풀을 건나물, 차, 비누 등 다양한 상품으로 가공하고 판로를 늘리면서 연매출 2억 원을 달성했다.

이상의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성과는 병풀이라는 희소한 작물을 발굴해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한 우수사례이다.”며, “이처럼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임업인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임산물 생산부터, 가공, 유통 및 판로 개척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	책임자	과 장	조진호 (042-481-4190)
		담당자	사무관	김대환 (042-481-4191)